



단체 소개

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세계 모든 국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 및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비정부기구들의 연합체이다.

2007년 호주 멜버른에서 창설되었으며, 그보다 10년 앞서 인도주의적 근거에 따라 대인지뢰를 불법화하는 데 성공한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았다.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.

창설 이래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생존자들, 그리고 핵실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을 포함해,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.

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, 유엔 사무국,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여러 정부와 함께한다.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인식 개선 행사를 열고, 선구적인 연구를 발표하며, 전 세계 행동의 날을 조직하고, 고위 지도자들에게 직접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.

노벨평화상을

2017년,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“핵무기의 사용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주목하게 한 활동과, 핵무기를 조약을 통해 금지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”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.

이 상은 핵시대가 시작된 이래 핵무기에 맞서 투쟁하며,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외쳐 온 전 세계 수많은 활동가들과 뜻있는 시민들의 끝없는 노력에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.

이것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, 당장 시급한 문제이다. 미래 세대는 반드시 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.

“지난 한 해 동안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그 누구보다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방향과 활력을 부여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.”

- 노르웨이 노벨위원회, 2017년



핵무기금지조약 원본 문서. 사진 제공: 핵무기폐기국제운동

세츠코 설로

열세 살 소녀였던 세츠코 설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로 의식을 잃었다. 그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혔지만, 기어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.

그는 “그 건물 안에 있던 제 급우들 대부분은 산 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”라고 회고했다. “주변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,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. (중략) 불에 탄 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.”

핵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인 세츠코는 2017년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락했다. 그는 “핵무기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”라고 경고했다.

“우리는 더 이상 이 광기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.”

그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최근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. 그는 “이 조약이 핵무기 종식의 시작이 되게 합시다”라고 말했다. “이 조약에 동참해 핵 절멸의 위협을 영원히 없애십시오.”



2017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세츠코 설로. 사진 제공: 조 스트로브

“핵무기를 불법화하고 폐기하기 위한 결연한 전 세계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. 이를 이번 세대 안에 실현하려면, 여론의 물결을 거대한 파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. 우리를 핵무기 없는 세계로 끝까지 밀어갈 거대하고, 거세며, 거부할 수 없는 힘 말입니다. 그런 힘이 없다면, 가장 영감을 주는 지도자들조차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.”

- 빌 윌리엄스, 핵무기폐기국제운동 공동창립자, 2006년

제네바에서 열린핵무기폐기국제운동 행동. 사진 제공: 오드 카티멜

